

# '투쟁' 하는 잔치를 위해서

97 전국노동자대회를 다녀와서

이선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



## 반갑게 손을 흔들어

먼길을 달리온 관광버스들이 하나둘 들이온다. 차유리를 온갖 구호로 도배하고 소풍가듯 도시락도 한보따리씩 싣고 들어 오던 버스안 노동자들은 드디어 도착한 것을 알고는 단박에 눈에 생기가 든다. 고개를 빼고 창밖을 내다보며 반갑게 손을 흔든다. 밖에 서 있는 이들도 서슴없이 손을 흔든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이 모두를 허물없게 한다. 아마 노동자대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들어오는 버스들 번호판이 모두 제각각이다.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그야말로 전국의 노동자가 뭉쳤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97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위해.

## 체육관 전야제

이번 대회 전야제는 88체육관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체육관 전야제인데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 대학 노천극장에서 열릴 때는 교정을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동지들이 직접 쓴 편영프랭카드와 정치구호 대자보들이 전야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반갑게 맞이하고, 비록 추운 날씨지만 옆에 앉은 동지의 체온으로

언음을 녹이고 신나는 노래에 맞춰 모두 하나되어 춤을 출 때면 불에 달던 상쾌한 거울 바람들이 꼭 해방구를 만드는 듯 했는데 체육관 전야제는 그런 신명이 나지 않는다. 난방되는 곳에서 편하게 앉아 배부른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전야제는 역시 추워도 광장이 낫다. 더구나 이번 체육관은 너무 좁아 못들어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체육관 안에서는 지하철 몸짓파의 공연이 한창이다. 뒤이어 몇몇 연맹과 단위노조들이 열심히 연습한 솜씨를 전국의 동지들 앞에 선보이느라 땀을 뻘뻘 흘린다. 전야제 순서에서 기억에 남은 것은 포항체철의 위장정리해고에 맞서 계절이 세 번 바뀌도록 싸우고 있는 삼미특수강 해고자의 아내였다. 그 아내는 라디오 방송에 남편과 남편동료들의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냈다. 몇 달째 생활비가 없어 아이들과 힘들게 사는 얘기와 남편과 동료들의 정당함, 그리고 포항체철 사장에게 평생을豁하게 살아온 남편과 동료들을 빠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그 편지가 방송을 탔고, 편지 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무대에 나온 남편과 아내는 전국의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한 포옹을 했고 포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200명쯤 되는 사람들 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 회의와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특별위원회(전해투)의 결의대회인데 민주노총의

운동관점과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노동운동 단압을 분쇄하고 전국 총파업투쟁을 즉각 조직할 것과 대선전술에 대해서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민주노총의 특별위원회인 전해투가 이런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조직에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인지 그렇지 못한 증거인지 어쨌든 쓱쓸하다. 대선전술과 관련해서 '국민'이라는 개량주의를 버리고 '노동자계급'임을 확실히 내세우라는 내용을 담은 유언들이 대회장에서 가장 많이 뿐려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의 연장인지 '권영길 국민후보'가 입장할 때도 소란이 약간 있었다. 국민후보 앞에 가로놓인 산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 여의도 본대회

본대회 장소가 여의도 급성무대라고 정해졌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장소문제를 걱정했다. 대회 분위기를 확 모으기 어려운 산만한 주변 때문이었는데 걱정대로 역시나 대회장소가 좋지 않다.

3만명정도가 모인 이번 대회 주제는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이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결정한 '권영길 후보'를 3만여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강력하게 추대하고 선거투쟁의지를 다지

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조이다.

하늘에 크게 권위원장의 사진이 떠있고 '일하는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써진 권후보의 대형 얼굴판을 든 노동자들이 대열을 지어 앉아있다.

아직 대회를 시작하기 전 각 연맹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운수산별 건설을 위한 전국운수노동자결의대회가 있고, 금속연맹과 현충련, 자동차연맹등 금속3주체가 모여 '금속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회장 주변에서 있었던 행사는 '전국민족민주열사 회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에서 민족민주열사들의 사진을 전시했고, '작은책'과 '보리' 출판사에서 전태일문학상 수상작들을 팔기도 했다. 한켠에서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이 앉아 있어 유심히 보니 두산기계 조합원들인데 다물단이 조합원을 때려서 등료가 죽었단다. 분위기가 사뭇 슬프다. 지난 나는 사람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으며 새삼 다물단에 대해 치를 떤다. 하루 빨리 해제시켜야겠다.

본대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에 노동자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속속 무대 앞으로 모

여든다. 개회선언, 깃발입장이 있는 후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배석범 수석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언제라도 제2의 총파업 투쟁을 벌일수 있도록 불퇴전의 결의를 다질 것과 진정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실현할 개혁정당건설의 기반이 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대회의 결정은 '정치실천단 발대식'과 '권영길후보 특별연설'이었다. 대선에서 핵심 일꾼 역할을 할 정치실천단 250명의 발대식이 있는 뒤 등장한 '국민후보'는 87년 대부쟁이 '인간선언'이었다면 지난 전국총파업은 '정치선언'이었고 이번 대선은 노동자의 '집권선언'이다.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고용을 안정시킬 후보,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후보는 권영길밖에 없다. 진정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권영길을 중심으로 대선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열변을 토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를 3만여명은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분체, 퇴직금 전액보장, 파견제 저지,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총력투쟁, 노동자 정치세력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고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는 막을 내렸다.

### 아쉬운 사람들

대회장 주변을 다니며 노동자들에게 이번 대회에 대해 물어보니,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제조업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대회가 예전보다 분위기가 산만하고 너무 가라앉아 있다. 비조합원에게 후회안할 거라면서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실망하는 눈치더라.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조합원이라는

중년 아저씨는

금속3주체통합  
을 어떻게 보느  
냐는 물음에  
'현대중공업 노  
조도 끝장났고

인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현충련과 민주노총 투쟁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깨가 무겁다. 이번 위원장이 잘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해 현충련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마다 각각이었는데 '국민후보 반대, 노동자후보 중심의 대선투쟁'을 주장하는 사람과 '권영길 후보는 찬성하나 계급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진보정당 건설은 시기상조이니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사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주장이 가지 각색이었다. 이런 의견차이들 때문에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 '끝난 대회'가 아닌 '미어질 대회'

올해 노동자대회에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사회단체



의 결합이 눈에 띠게 줄어든 점이다. 민족 민주세력을 망라한 조직인 '전국연합'이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후보 결정에 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연합 산하단체들의 참가가 적었고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 했다.

이름은 '노동자 대회' 이되 '노동자만의 대회' 여전 안되는데 민주노총이 결성된 후 오히려 사회단체의 결합이 줄어든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대회는 잔치는 잔치이되 '투쟁하는 잔치'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노동형 제들이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 한자리에 모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동자대회는 당연히 반가운 잔치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모이는데 그 마음이 어찌 단순하게 빙갑기만 하랴. 자본과 별이는 노동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노동자대회는 '투쟁하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노동자대회가 힘이 없어졌다. 조직동원도 잘 되지 않고 분위기도 뜨지 않는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총파업투쟁'도 '노동자대통령'도 어느 것 하나 힘차게 결의되지 못했고, 가두행진을 통한 시위도 없었다.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인 '가두행진'이 없으니 대회 마무리가 그냥 산만하게 끝내버린다.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한번에 단일한 정치구호로

10만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그러나 여의도 공원에 우리끼리 모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면 노동자가 10만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용불안'과 '경제파탄'에 대한 불만으로 어느때보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마당에 3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 후보'에게도 큰 유세장이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대회가 또하나의 '관성'이나 '연례 행사'로 자리잡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법인지 노동자 대회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많은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완성된 조직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조직'인 것처럼 '노동자 대회'도 '끝난 대회'가 아니라 해마다 '이어질 대회'이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고용안정'은 누가 거쳐 주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도 '정치세력화'도 아무도 노동자들에게 그냥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대를 채워주는 노동자 대회'도 그냥 만들어지진 않는다.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란 생각이 필요하다. '주인의식'을 갖고 요구하고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진다면 내년에는 '새롭게 달라진 노동자 대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대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